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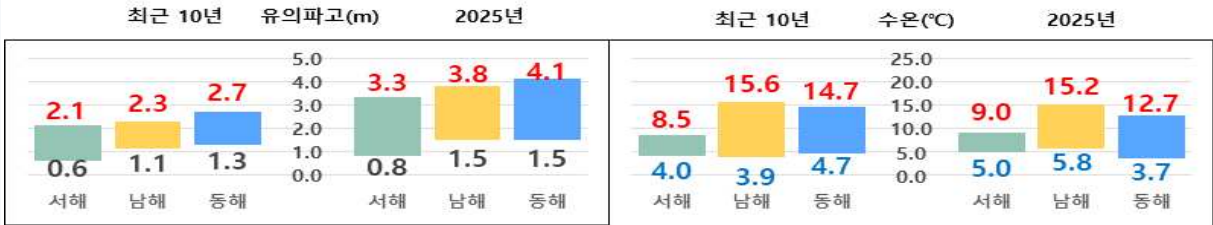
2025년 4월 해양 기상·기후정보



발표일: 2025년 3월 31일

해양 기상·기후

○ 3월 해양 기상 분석(최근 10년('15~'24년) 및 2025년)



○ 과거 4월 해양 기상 특성(최근 10년('15~'24년))



○ '25년 4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조석

○ 조석정보(고극조위, '25년 4월)

- 인천: 31일(921cm) / 완도: 30일, 31일(395cm) / 포항: 30일, 31일(19cm)

안전

○ 해상조난사고 현황(최근 5년간('20~'24년))

- 최근 5년간 19,712척의 선박사고와 3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4월에는 1,377척(7%), 20명(6%)이 발생

○ 해양사고 현황(최근 5년간('20~'24년))

- 4월은 화재·폭발사고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철저한 기관·전기설비 점검 및 선내 작업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됨

어업

○ 4월 어황 전망

- 전갱이, 살오징어, 갈치, 참조기는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삼치는 평년 수준으로 전망되고 고등어, 망치고등어는 생산량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 멸치는 금어기가 시행되었음

자료협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과학원

「2025년 5월 해양 기상·기후정보」는 2024년 5월 1일에 발표됩니다.

해양 기상 · 기후정보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4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4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면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외연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덕적도
서해남부	칠발도, 맹골수도	진도, 군산, 영광, 신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파고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륙도, 다대포,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동해, 독도,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맹방
동해남부	포항	후포, 간절곶
제주도	마라도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최근 10년간('15~'24년) 4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4m (전월보다 0.1m 낮음)	0.7m (전월보다 0.2m 낮음)
남 해	0.5m (전월과 비슷)	1.1m (전월과 비슷)
동 해	0.8m (전월보다 0.1m 낮음)	1.1m (전월보다 0.2m 낮음)
제주도	0.7m (전월과 비슷)	1.2m (전월보다 0.1m 낮음)

<순별 평균 유의파고>

(상순)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 제주도먼바다에서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중순) 남해먼바다, 동해먼바다, 제주도먼바다에서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하순) 남해동부먼바다, 동해먼바다, 제주도먼바다에서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4	0.4	0.4	0.7	0.6	0.6
남 해	0.6	0.5	0.5	1.2	1.1	1.0
동 해	0.8	0.9	0.8	1.2	1.2	1.1
제주도	0.7	0.6	0.6	1.3	1.2	1.1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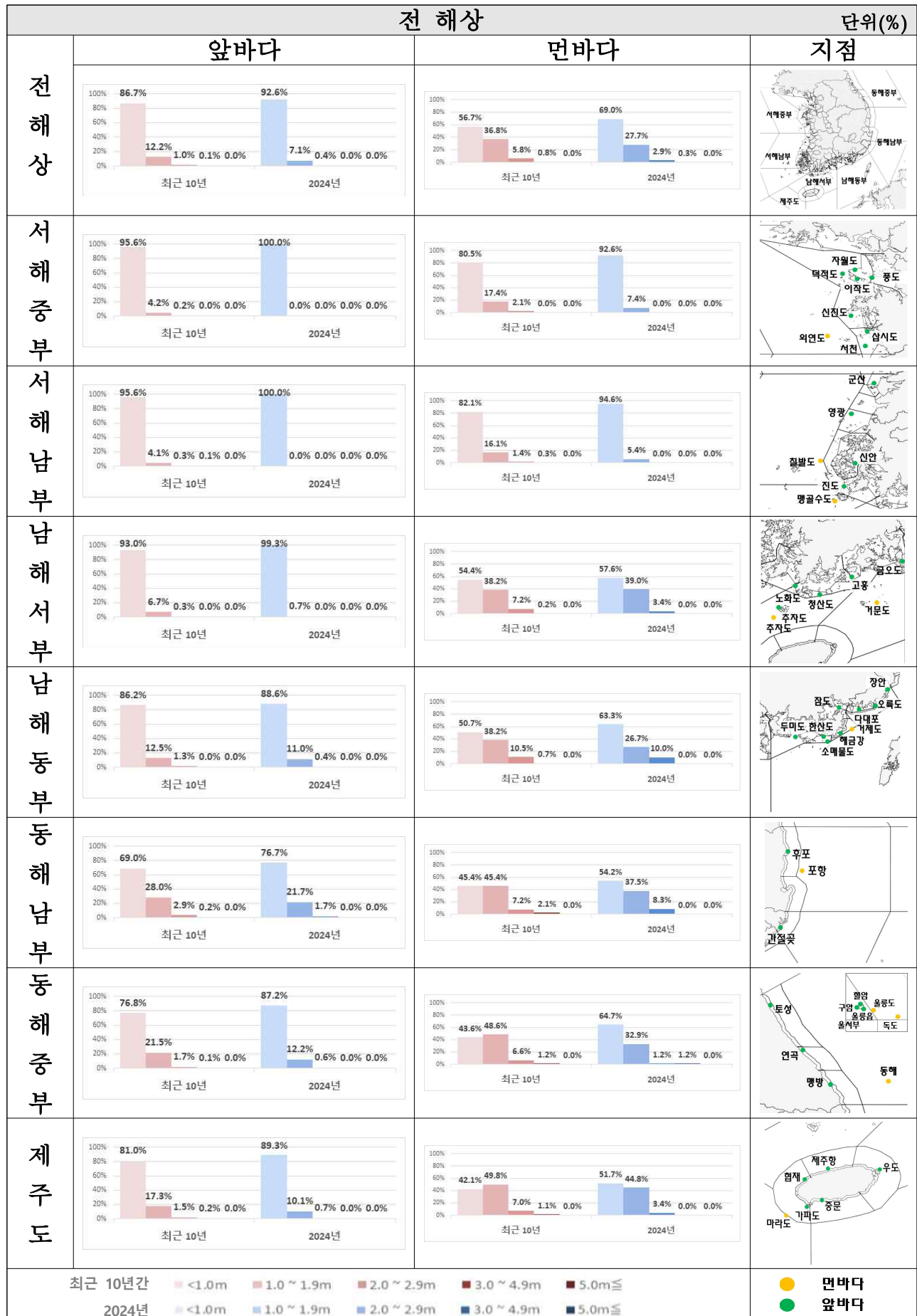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15~'24년) 4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 서 해: 앞바다 3.2m / 먼바다 3.1m
- 남 해: 앞바다 2.9m / 먼바다 3.5m
- 동 해: 앞바다 3.8m / 먼바다 4.3m
- 제주도: 앞바다 3.2m / 먼바다 3.6m

○ 관측 이래 4월 지점별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13.4.7.	3.9 (5.9)	칠발도	'12.4.3.	3.5 (6.6)	칠발도	'13.4.6.	3.4 (5.2)
남 해	거제도	'20.4.13.	3.5 (4.3)	거문도	'12.4.21.	3.4 (5.3)	거문도	'12.4.3.	3.2 (4.3)
동 해	울릉도	'13.4.7.	5.1 (6.2)	울릉도	'12.4.4.	5.0 (6.1)	동해	'13.4.7.	4.9 (7.3)
제주도	마라도	'12.4.3.	4.4 (6.7)	마라도	'13.4.6.	4.1 (5.5)	서귀포	'22.4.14.	3.8 (4.1)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4월 유의파고 분포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4월 전 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10년 (앞바다) 1m미만 86.7%, 2m이상 1.1%
(먼바다) 1m미만 56.7%, 2m이상 6.6%
- 지 난 해 (앞바다) 1m미만 92.6%, 2m이상 0.4%
(먼바다) 1m미만 69.0%, 2m이상 3.2%

○ 최근 10년간('15~'24년) 4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 해: (앞바다) 1m미만 95.6%, 2m이상 0.3% (먼바다) 1m미만 81.6%, 2m이상 1.9%
- 남 해: (앞바다) 1m미만 88.8%, 2m이상 0.9% (먼바다) 1m미만 53.1%, 2m이상 8.7%
- 동 해: (앞바다) 1m미만 74.8%, 2m이상 2.1% (먼바다) 1m미만 44.1%, 2m이상 8.2%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81.0%, 2m이상 1.7% (먼바다) 1m미만 42.1%, 2m이상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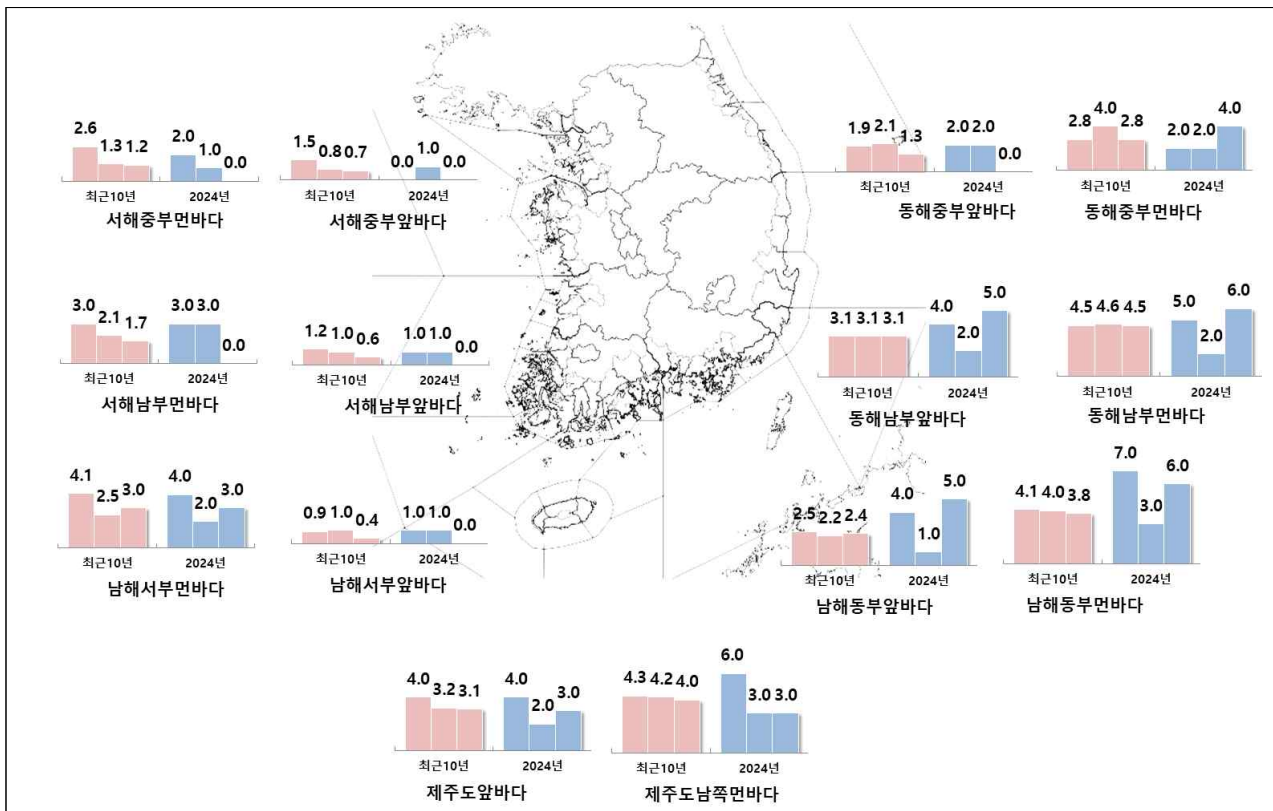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4월 유의파고 분포 최대 해역

- 최근 10년: (1m미만) 서해남부앞바다(95.6%) / (2.0m이상) 남해동부먼바다(11.1%)
- 지 난 해 : (1m미만) 서해중부·남부앞바다(100.0%) / (2.0m이상) 남해동부먼바다(10.0%)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외연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덕적도
서해남부	칠발도, 맹골수도	진도, 군산, 영광, 신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파고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두미도, 장안, 해금강, 오륙도, 다대포,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동해, 독도,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맹방
동해남부	포항	후포, 간절곶
제주도	마라도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4월 풍랑특보일 수



<최근 10년간('15~'24년) 및 '24년 4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4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10년: 7.8일, 전월(9.1일)보다 1.3일 적음
- 지난해: 7.6일, 전월(15.9일)보다 8.3일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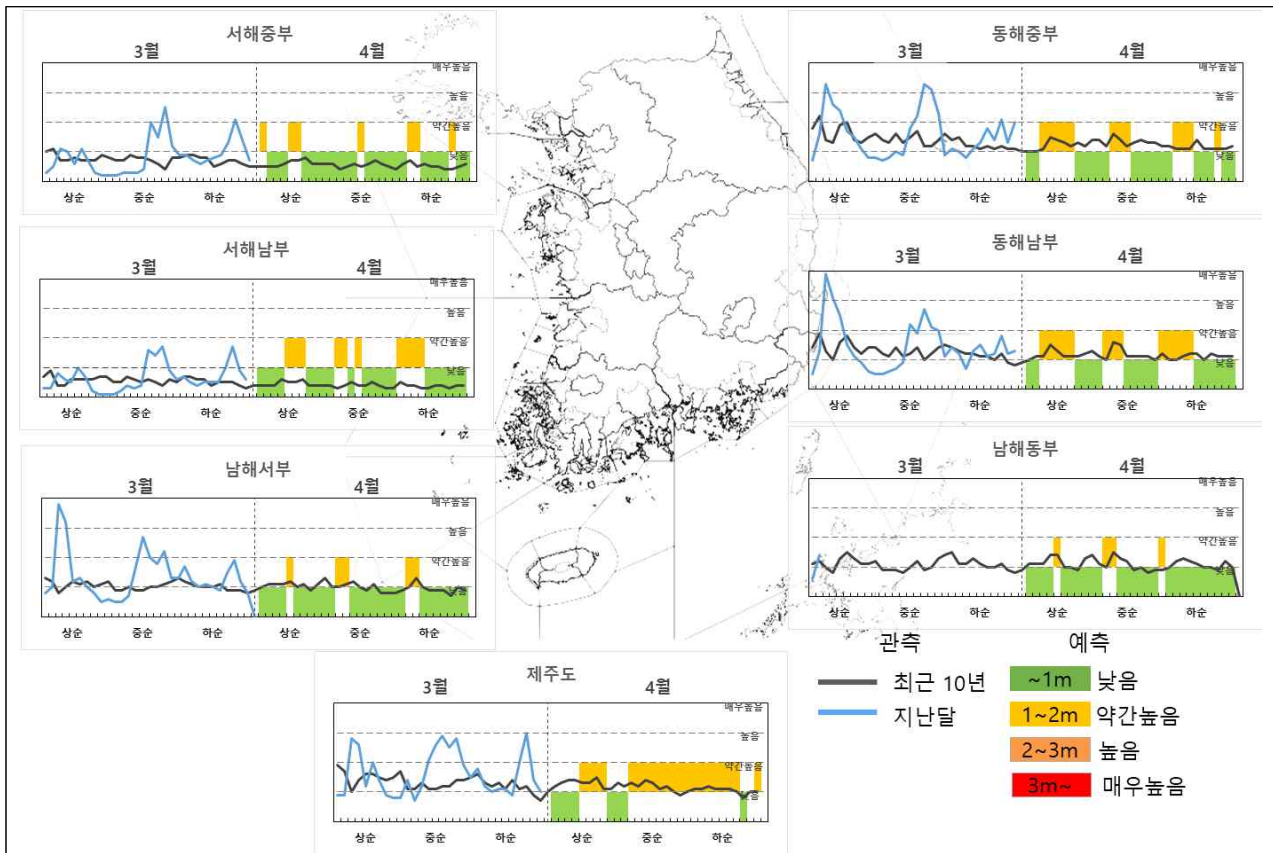
○ 4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10년: 상순 2.9일 / 중순 2.6일 / 하순 2.3일
- 지난해: 상순 3.2일 / 중순 1.9일 / 하순 2.5일

○ 4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10년: 동해남부먼바다(27.2일) / 남해서부앞바다(4.6일)
- 지난해: 남해동부먼바다(16.0일) / 서해중부앞바다(1.0일)

유의파고 관측 및 예측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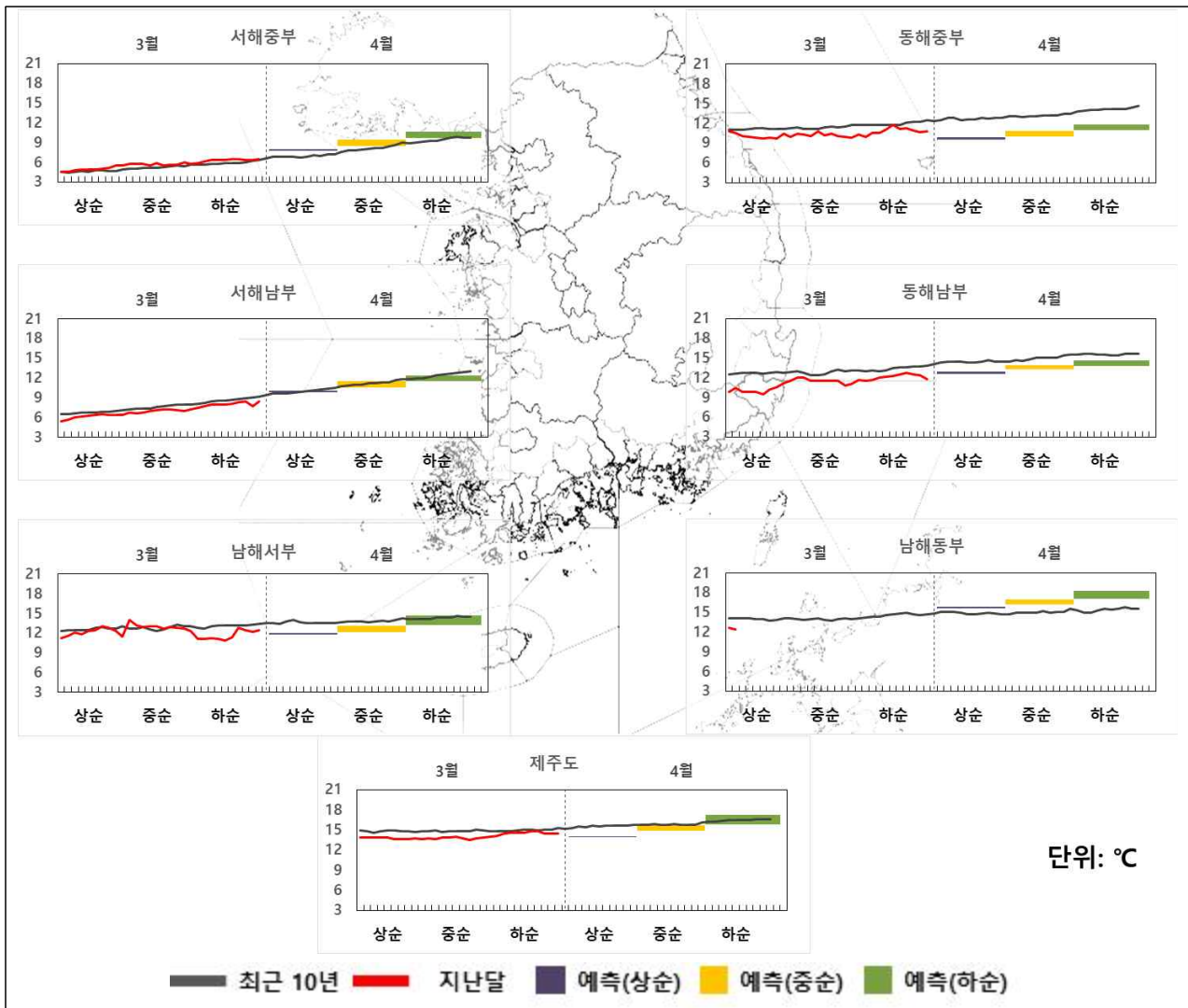
< 유의파고 최근 10년('15~'24년) 및 '25년 3월(3.1~3.30.) 관측과 4월 예측 >

- ✓ 유의파고는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관측한 일 평균 유의파고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15~'24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5년 3월(1일~30일)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파고 예측은 수치모델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범위로 표출함
※ 파고 구간값: **낮음**(1m 미만), **약간높음**(1~2m), **높음**(2~3m), **매우높음**(3m 이상)
- ✓ 파고 예측정보는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남해동부는 거제도 해양기상부이 위치 이탈로 인한 관측 부재로 그래프 미표출(3월 4일~)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제주도	마라도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해수면 온도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해수면 온도 최근 10년('15~'24년) 및 '25년 3월(3.1~3.30.) 관측과 4월 예측 >

- ✓ 해수면 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정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10년(—)은 최근 '15~'24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5년 3월(1일~30일)의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해수면 온도 예측은 전지구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남해동부는 거제도 해양기상부이 위치 이탈로 인한 관측 부재로 그래프 미표출(3월 4일~)

해역	해양기상부이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남해동부	거제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포항
제주도	마라도

○ 지난달 ('25년 3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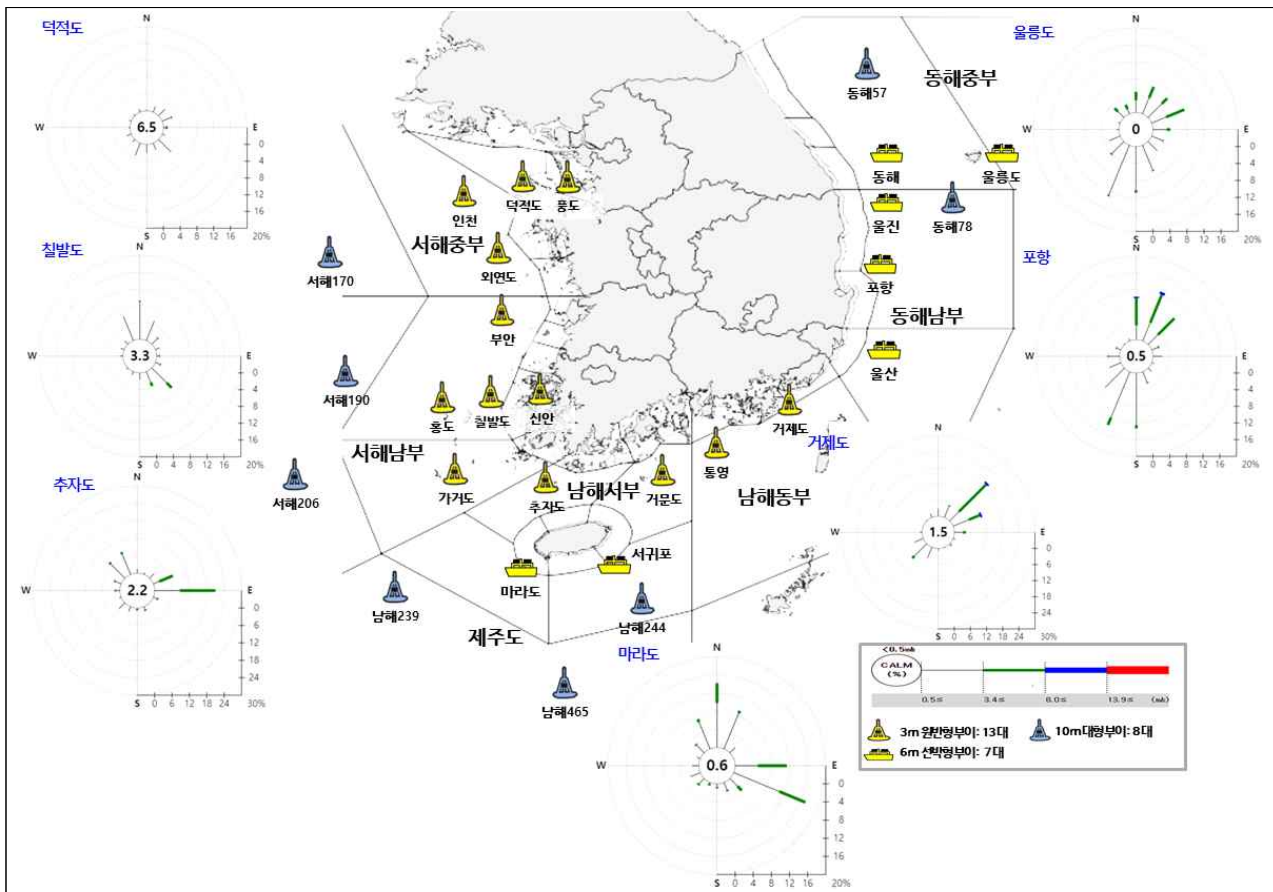
해역	3월 해수면 온도(℃) (최근 10년 대비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4.0~6.4 (0.3)	4.8~6.8 (0.4)	5.5~6.9 (0.4)
서해남부	5.1~6.8 (-0.6)	6.1~7.7 (-0.6)	7.2~9.0 (-0.7)
동해중부	9.0~10.8 (-1.1)	9.3~11.6 (-1.2)	9.4~11.7 (-1.1)
동해남부	9.5~11.5 (-2.5)	10.8~12.0 (-1.3)	11.6~12.7 (-1.3)
남해서부	9.4~13.8 (-0.5)	11.3~15.2 (0.2)	9.7~15.1 (-1.5)
남해동부	-	-	-
제주도남쪽	13.6~13.9 (-1.1)	13.5~14.0 (-1.1)	14.1~14.8 (-0.5)

* 남해동부는 거제도 해양기상부이 위치 이탈로 인한 관측 부재로 미표출

○ 최근 10년간('15~'24년) 4월 해수면 온도 평균 및 '25년 4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예측

해역(관측지점)		(과거) 최근 10년간 3월 해수면 온도 평균	(예측) '25년 3월 해수면 온도
서해중부	외연도, 덕적도	4.7~13.7	7~11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7.7~15.5	9~13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10.6~17.1	9~13
동해남부	포항	11.6~17.2	12~15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7.6~16.5	11~16
남해동부	거제도	13.2~17.3	15~19
제주도	마라도	11.7~18.5	13~18

■ 지난해('24년)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 '24년 4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 지난해('24년) 4월 각 해역의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3.3	3.4~7.9	8.0~13.8	13.9≤	
서해중부	NNW	3.3	56.8	35.5	4.4	0.0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170, 풍도
서해남부	N	2.8	45.2	43.6	8.4	0.0	칠발도, 신안, 부안, 서해206, 가거도, 홍도, 서해190
남해서부	E	2.1	37.4	40.7	19.7	0.2	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	ENE	1.9	38.6	37.6	21.0	1.0	거제도, 통영
동해중부	S	0.4	20.7	61.7	17.3	0.0	울릉도, 동해
동해남부	SSW	0.7	21.7	54.5	22.6	0.5	포항, 울산, 울진, 동해78
제주도	E	0.9	24.3	60.1	14.7	0.0	마라도, 서귀포, 남해239, 남해465
전 해상		1.7	35.0	47.7	15.4	0.2	

- 주풍계: 서해상은 북풍계열, 남해상과 제주도는 동풍계열, 동해상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
- 전 해상 풍속: 3.4^{m/s} 미만 36.7% / 3.4 ~ 7.9^{m/s} 47.7% / 8.0^{m/s} 이상 15.7%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3.4^{m/s} 미만 - 서해중부(60.1%) / 8.0^{m/s} 이상 - 동해남부(23.1%)

☞ 지난해('24년) 4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해양조석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4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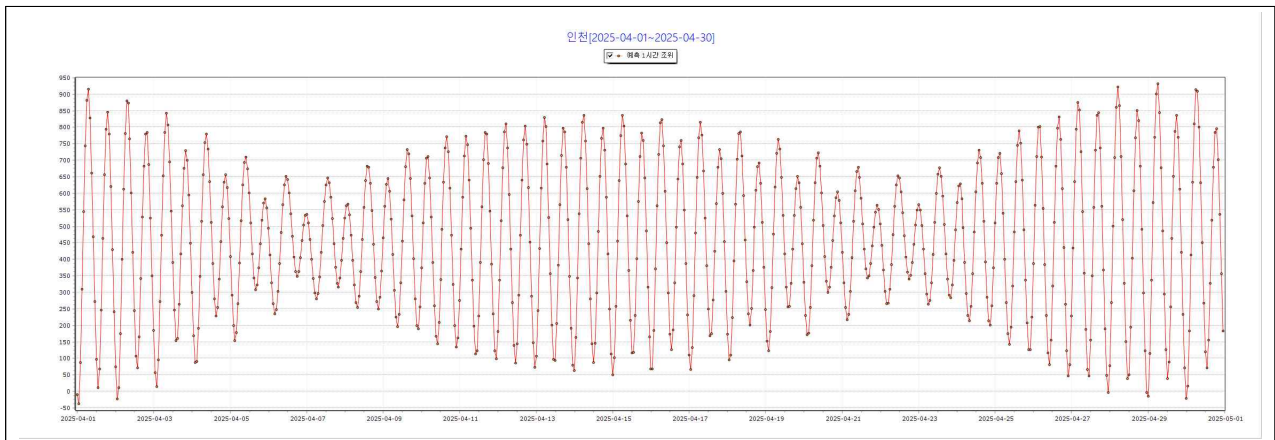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4월 29일에 93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4월 28일에 408cm, 동해안의 포항은 4월 30일에 3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4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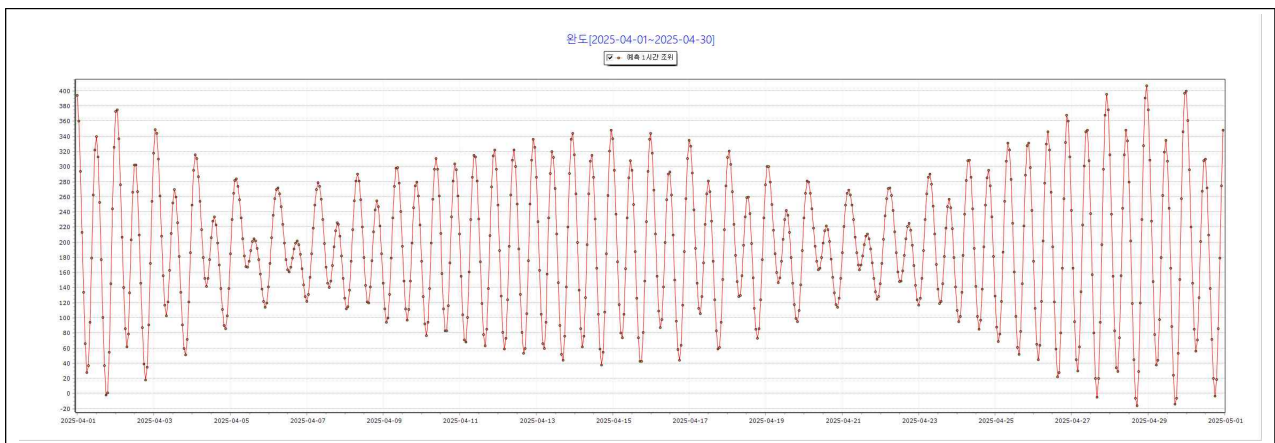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삭, 4.1.)		대조기(망, 4.13.~4.16.)		대조기(삭, 4.27.~4.30.)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천	4.1 06:47	918	4.14 05:42	840	4.29 05:45	936
	안흥	4.1 05:41	701	4.15 05:10	632	4.29 04:40	716
	군산	4.1 05:00	718	4.15 04:30	649	4.29 03:59	737
	목포	4.1 04:11	485	4.15 03:35	429	4.30 03:57	505
남해안	제주	4.1 00:22	282	4.14 23:49	250	4.28 23:25	297
	완도	4.1 11:53	340	4.14 23:12	348	4.28 22:48	408
	마산	4.1 23:17	194	4.14 21:56	179	4.28 21:39	210
	부산	4.1 22:41	118	4.13 20:56 4.14 21:22 4.15 21:47	110	4.28 21:03	131
동해안	포항	4.1 16:52	22	4.16 16:41	25	4.30 16:08	36
	속초	4.1 16:34	26	4.15 15:56 4.16 16:20	26	4.30 16:01	32
	울릉도	4.1 16:07	15	4.15 15:22 4.16 15:38	20	4.30 16:22	30

☞ 2025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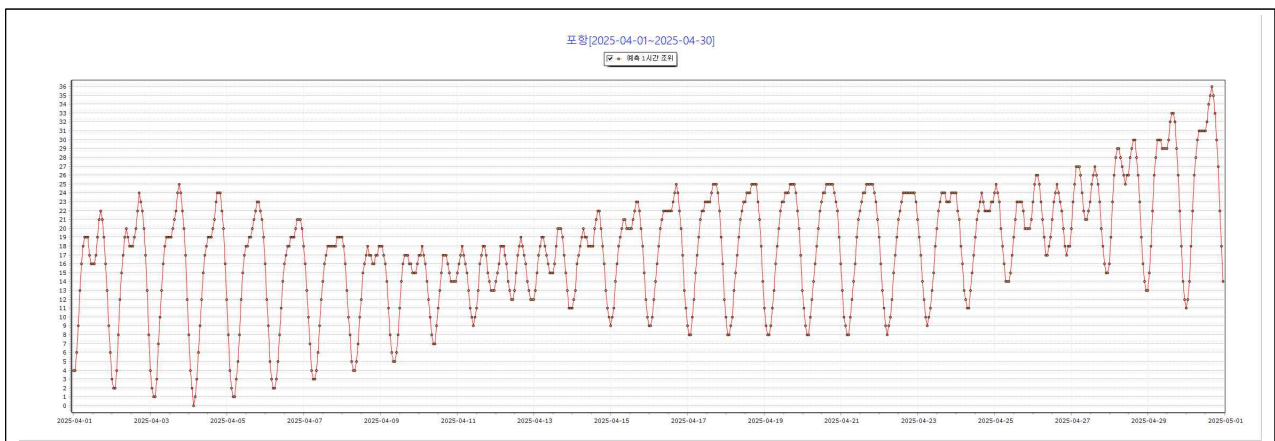
○ 4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5년 4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5년 4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5년 4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해상조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 해상조난사고 현황(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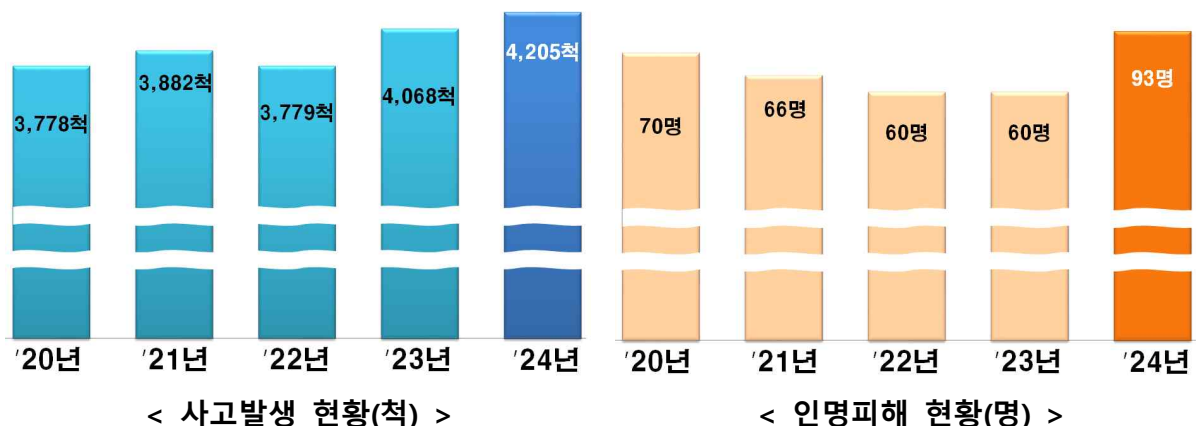
- (총괄) 최근 5년간 19,712척의 선박사고와 3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 4월에는 1,377척(7%), 20명(6%)이 발생하였음
- (선종별) 어선(낚시) 58%(어선 705·낚시 88척) > 레저선박 20%(272척) > 예부선 8%(111척) > 화물선(유조선 포함) 5%(75척) 등 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 73%(1,001척)*를 제외, 6대사고(376척) 중 충돌 27%(100척) > 침수 22%(84척) > 좌초 20%(76척) > 화재 19%(72척) 등 순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작업 중 인명사상 등
- (원인별)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 37%(505척) > 운항·안전부주의 34%(462척) > 관리소홀 11%(153척) > 기상악화 3%(39척) 등 순 발생

○ 해상조난사고 통계('20년 ~ '24년)

* 24년 통계는 잠정치

- 최근 5년간 19,712척(연평균 3942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110,878명 중 349명(사망 248명, 실종 10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구분	발생		구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계	19,712	110,878	19,329	110,529	349	248	101
2024년	4,205	26,499	4,141	26,406	93	62	31
2023년	4,068	21,666	3,990	21,606	60	47	13
2022년	3,779	21,032	3,709	20,972	60	46	14
2021년	3,882	20,174	3,779	20,108	66	43	23
2020년	3,778	21,507	3,710	21,437	70	50	20
평균	3942	22,175	3,865	22,105	69	49	20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2020~2024) 4월 중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4월의 해양사고는 평균 207건 발생(월평균 25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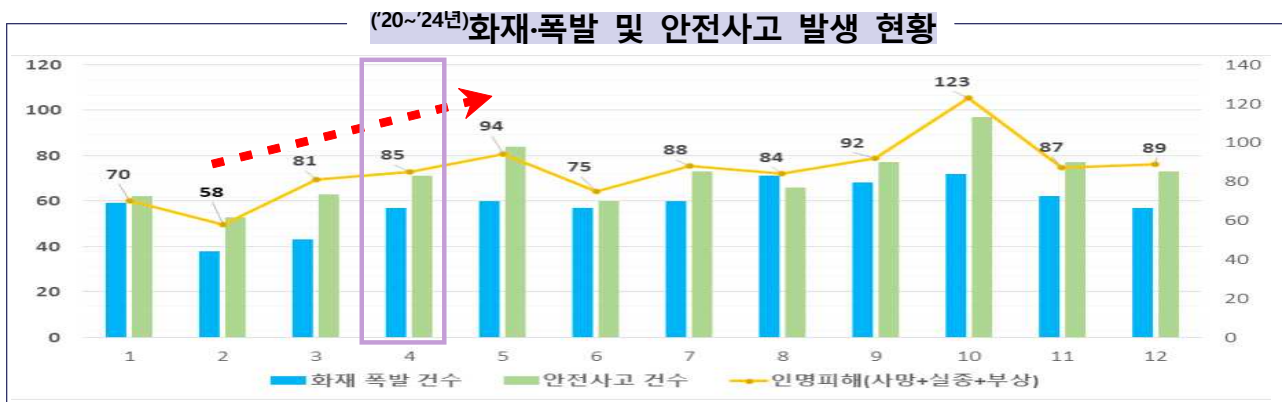


- (사고유형) 주요사고*는 연평균 충돌 16.4건(7.9%), 안전사고 14.2건(6.9%), 화재·폭발 11.4건(5.5%), 전복 5.8건(2.8%), 침몰 2.8건(1.4%) 순 발생
- * 주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선박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를 의미
- ** 단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 54건(25.9%), 부유물 감김 30건(13.5%), 침수 14건(6.9%), 좌초 12건(6.0%) 등 순

- (선박종류) 어선 143.4척(63.2%), 수상레저기구 38.6척(17.0%), 화물선 11.6척(5.1%), 예인선 10.6척(4.7%), 유조선 7.8척(3.4%), 여객선 3.2척(1.4%) 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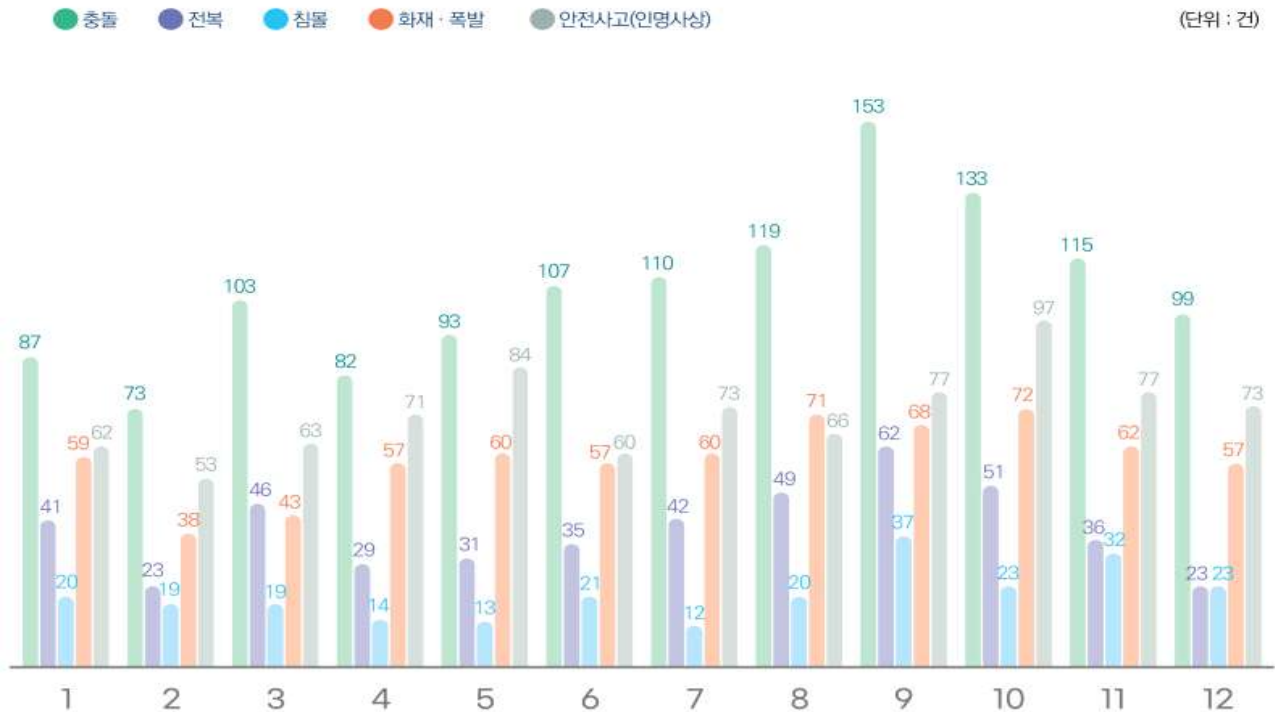
○ **4월은 화재·폭발사고 및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철저한 기관·전기설비 점검 및 선내 작업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됨**

- (사고현황) 최근 5년간 화재·폭발사고는 4월에 57건 발생하여 전월 대비 14건(33%, 연중최고) 증가, 안전사고는 71건으로 전월 대비 8건(13%) 증가
- (화재사고) 주원인은 선체, 기관설비의 결함(28.4%) 및 기관설비 취급불량(19.4%)으로,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점검, 기관설비 작동법 교육 등 필요
- (안전사고) 주원인은 선내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49.3%)로, 개인 보호장비 착용, 양망기·어구·줄 등과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수칙 준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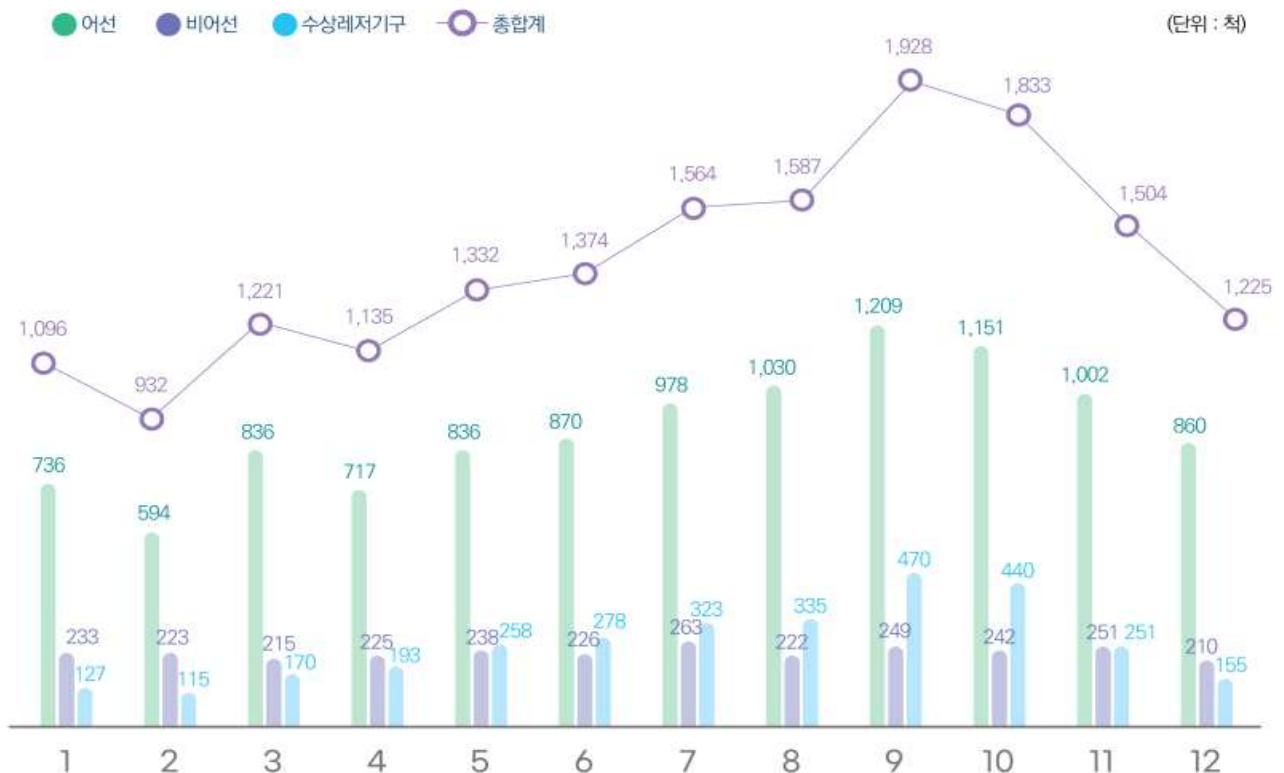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20~2024)

○ 주요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물과학원

□ 4월 어황정보

○ 지난달(3월)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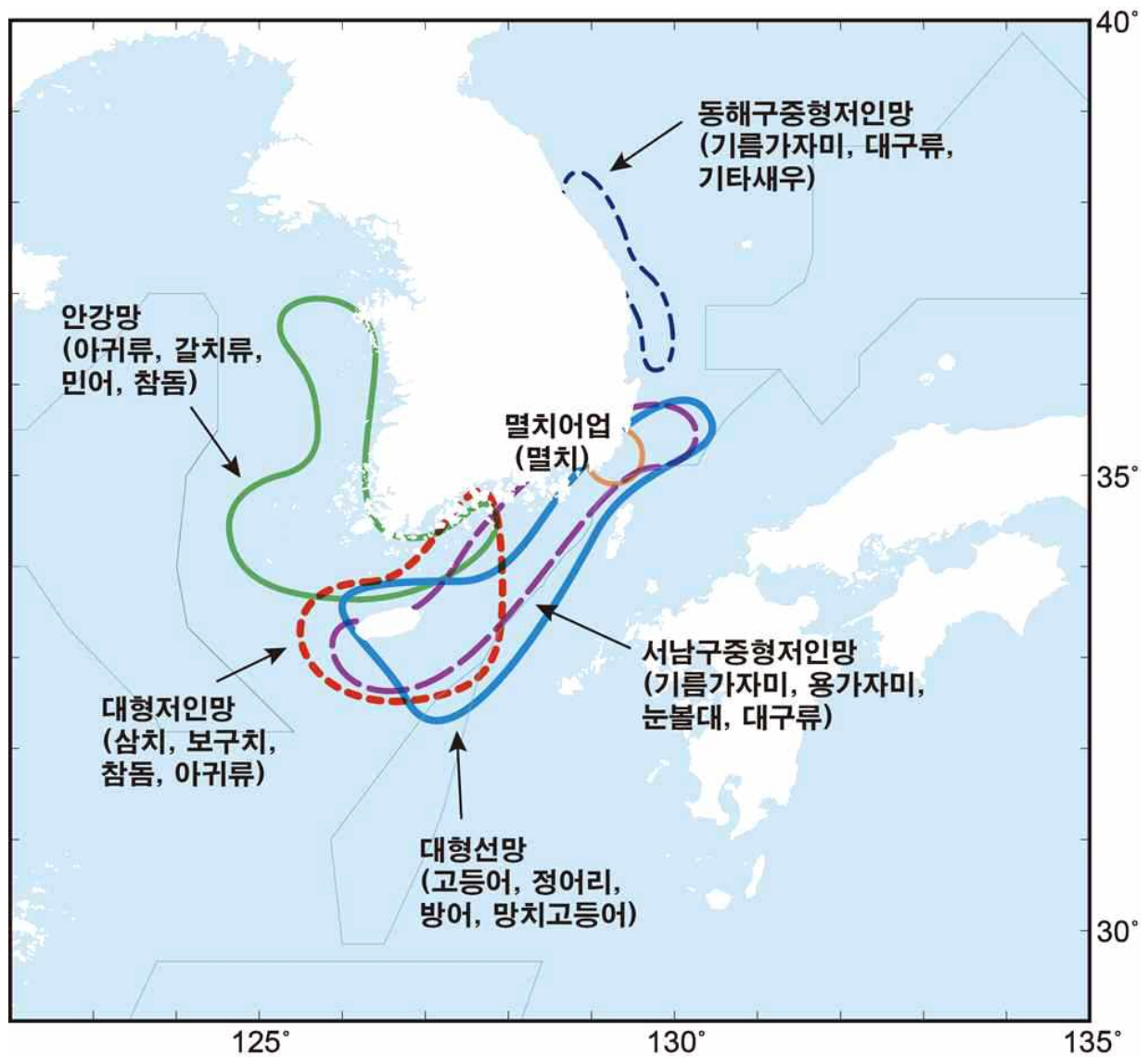
- 3월(기간: ' 25.2.23.~' 25.3.22.)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고등어, 망치고등어는 평년대비증가, 살오징어, 갈치, 참조기, 전갱이, 멸치, 삼치는 평년대비 감소하였다.

○ 4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은 약 2개월간 자율휴어기(4.12.~6.14.)에 들어가겠다.
- 오징어채낚기어업: 4월 한달 간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업종별 금어기에 들어가겠다.
- 멸치권현망어업: 4월부터 권현망어업은 멸치 주산란기를 맞아 3개월(4~6월)간의 금어기에 들어가겠다.
- 근해안강망어업: 서해 남부해역에서 제주도 북서부 근해에 걸쳐 갈치, 병어류, 황아귀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고, 전체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 저인망어업
 - 대형쌍끌이저인망어업: 삼치, 고등어, 갈치, 병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 주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남부~남해 중부 근해에 걸쳐 갑오징어, 보구치, 눈불대, 황돔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다.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용가자미, 황아귀, 갑오징어, 눈불대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부, 남해 및 동해 남부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연근해를 중심어장으로 도루묵, 청어, 대구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다.
 - 저인망어업의 전체 어황은 평년대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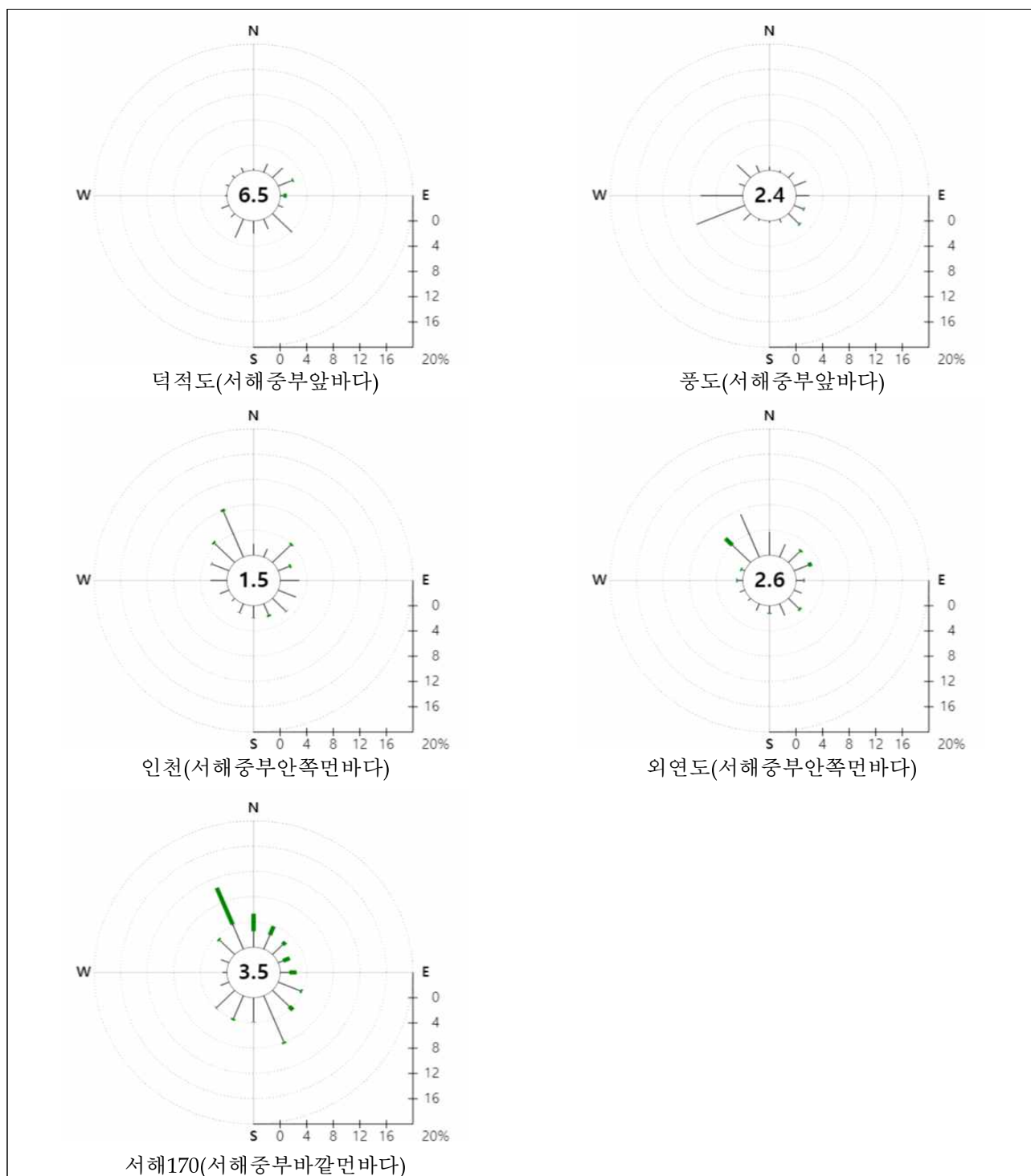
고 등 어	제주도 주변해역과 남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주 산란기를 맞아 한 달간 금어기(4.12.~5.12.)이며, 대형선망은 약 2개월간 자율휴어기 시행(4.12.~6.14.)으로 생산량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갱 이	산란기(2~5월)를 맞아 어군이 동중국해와 일본 규슈해역으로 남하함에 따라 우리나라 어장에서 어군밀도가 감소하겠다. 제주도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4~5월은 금어기로 인해 조업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최근 자원밀도 감소의 영향으로 전·평년대비 부진한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살오징어 금어기: 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은 4월 한달간 실시)
멸 치	업종인 멸치권현망 어업은 주 산란기(4~8월) 멸치자원 보호를 위해 3개월(4~6월) 간의 금어기가 시행되겠다.
갈 치	제주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고, 연중 한어기(4~5월)로 어군밀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 조 기	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일부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주어기(9~12월)를 지나면서 어획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전체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 치	제주 주변해역에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망치고등어	약 2개월간 대형선망은 자율휴어기 시행(4.12.~6.14.)으로 생산량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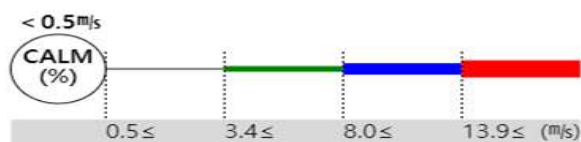
< 2025년 4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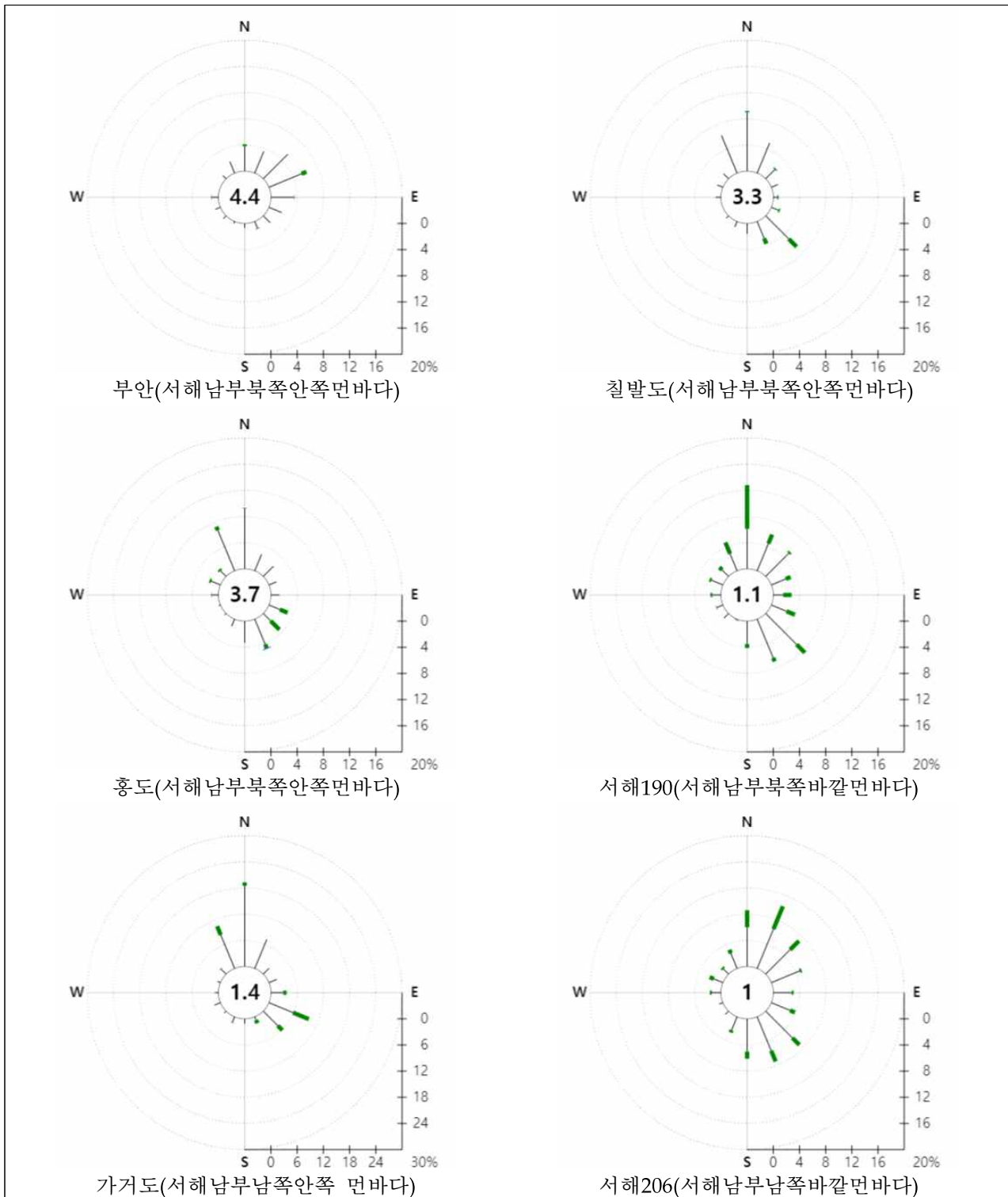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 중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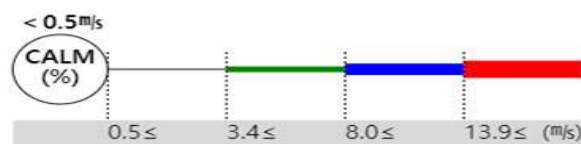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4년 4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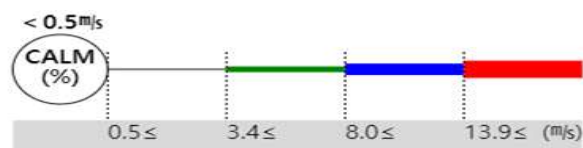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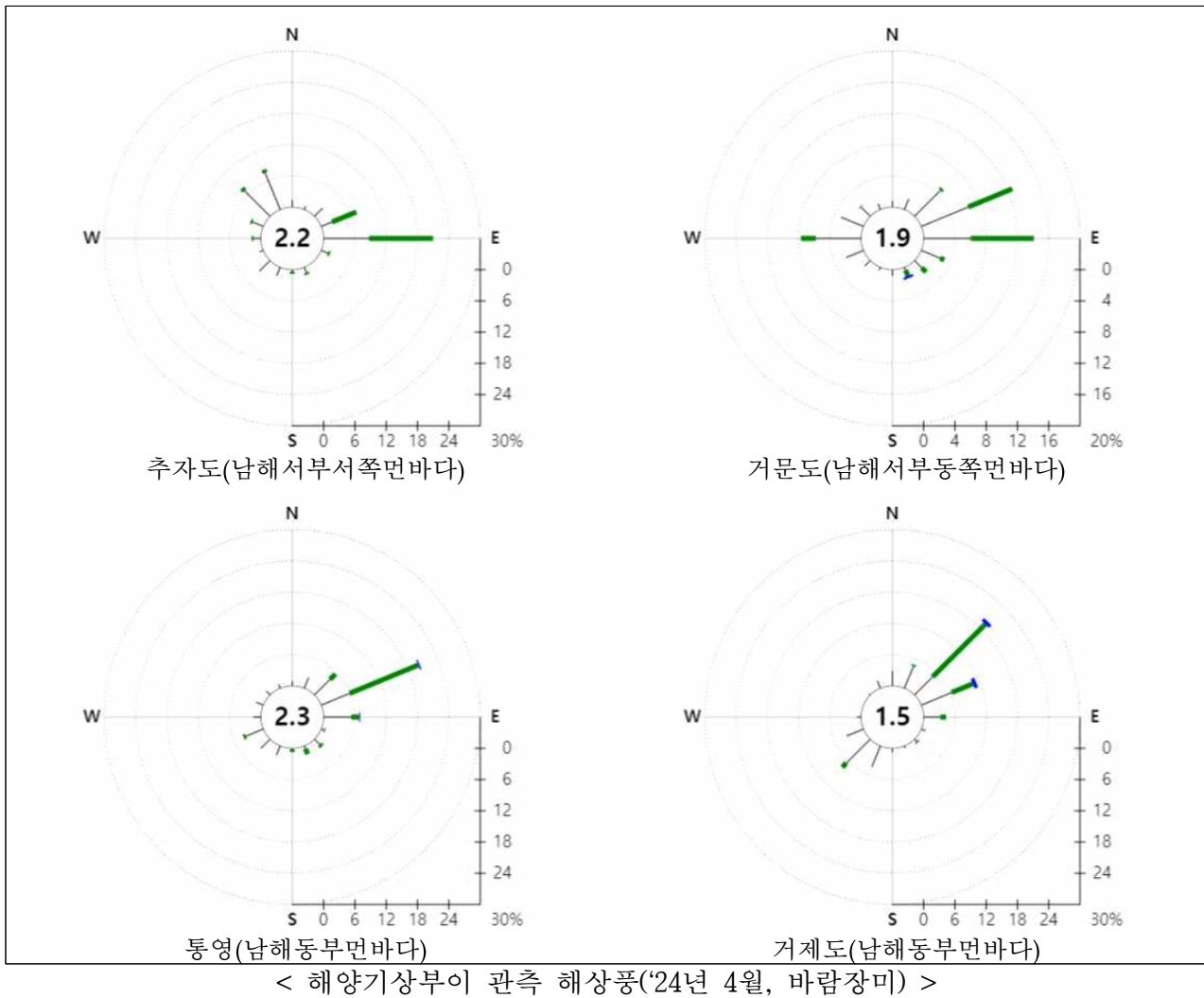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남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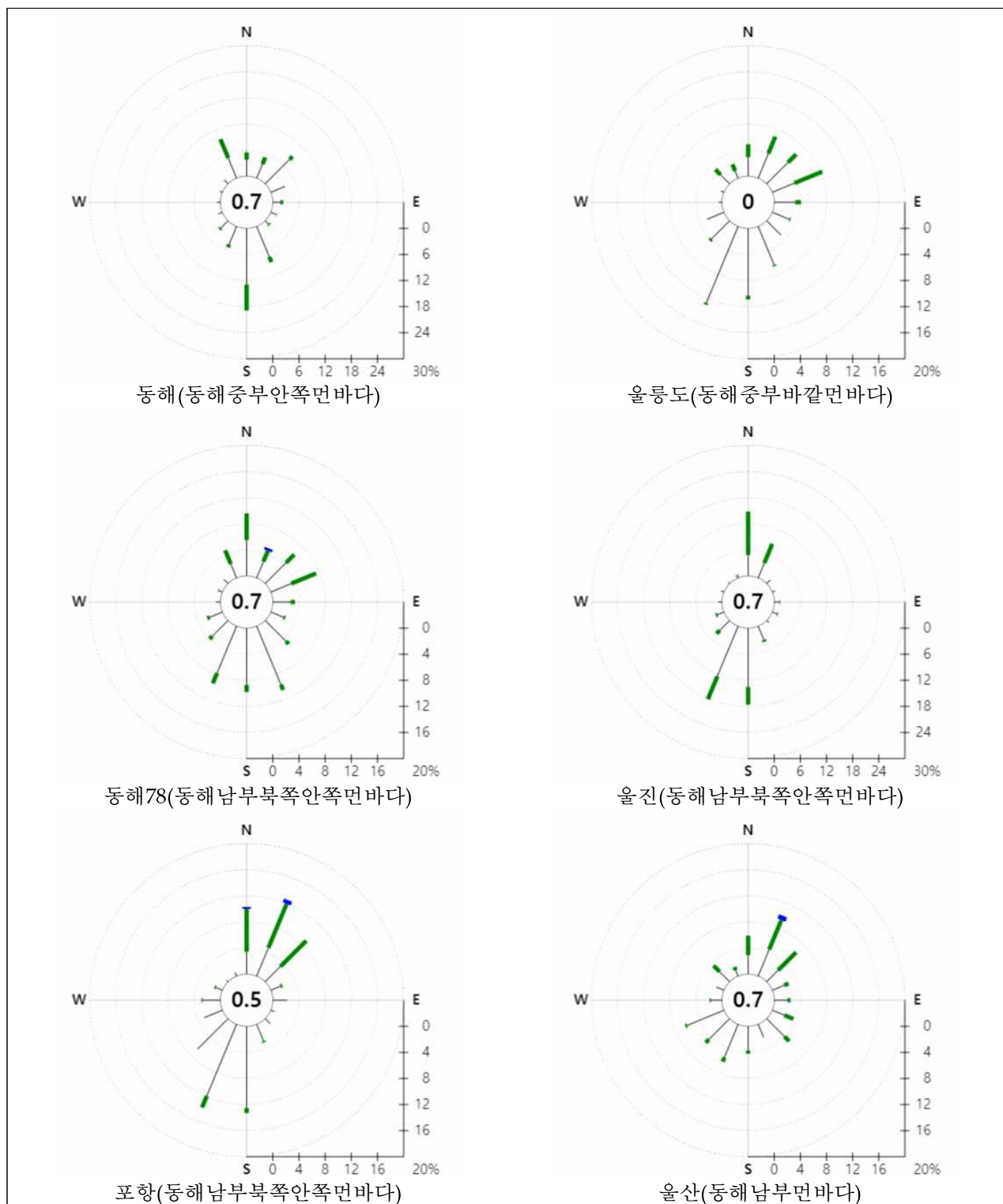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4년 4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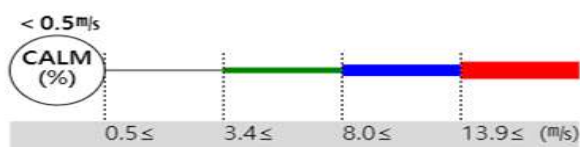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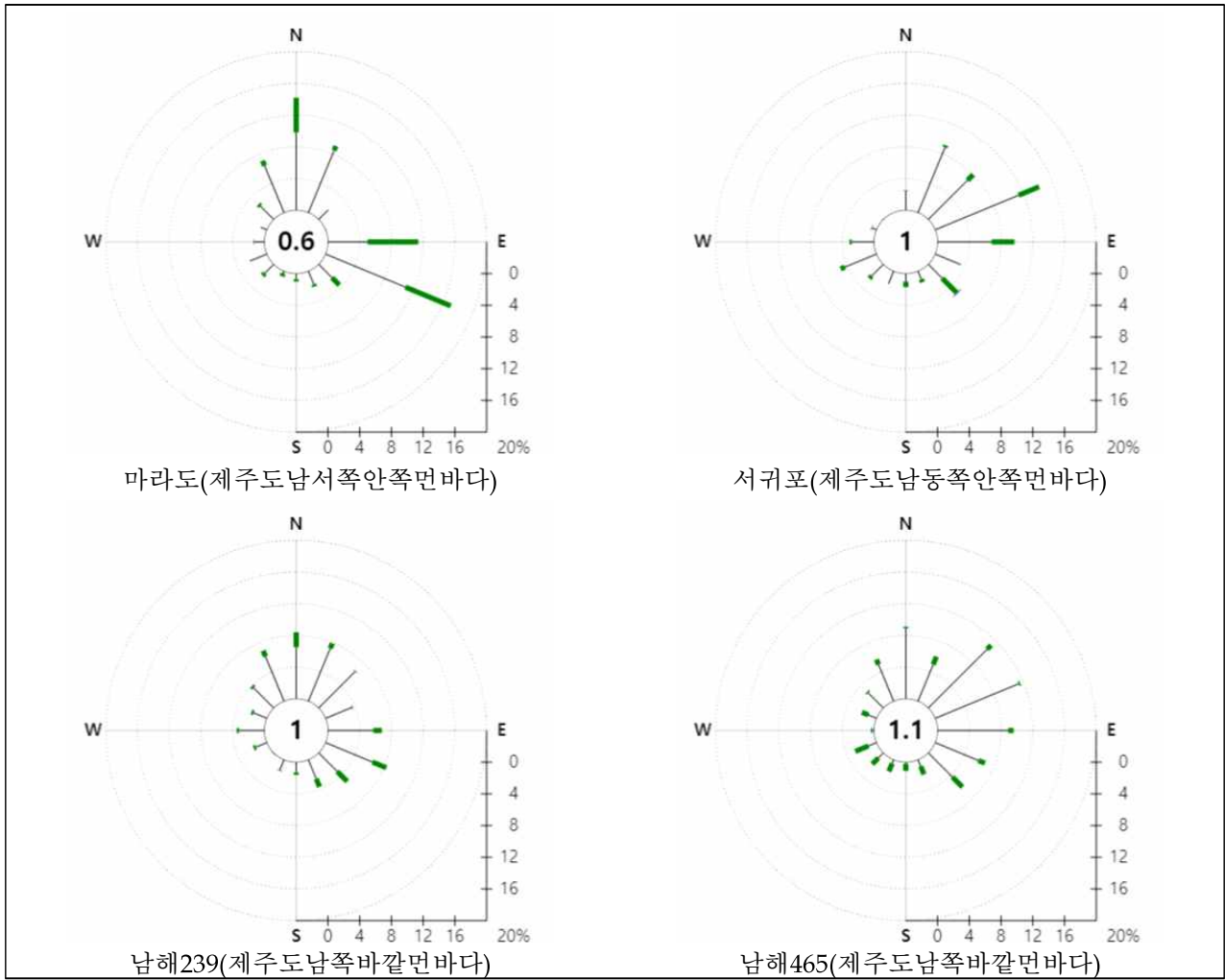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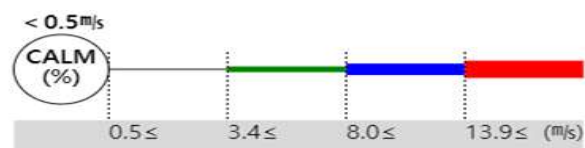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4년 4월, 바람장미) >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제주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4년 4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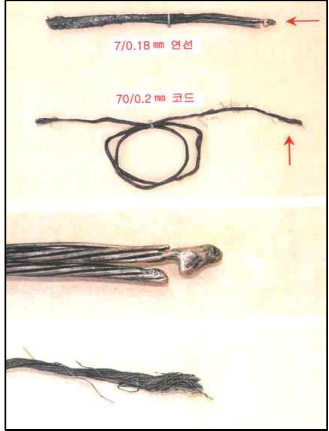


【부록 2】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낚시어선 A호 화재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 낚시어선, 9.77톤, 길이 16.60미터, 디젤기관 609킬로와트 1기
	일시	2021. 8. 7. 13:14경
	장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문갑도 서쪽 약 2해리 해상
	피해	A호 전소 후 폐선
원인	날씨	맑은 날씨, 시정 좋음, 북서풍 초속 4~6미터, 파고 약 0.5미터
	원인	이 화재사건은 A호가 정류하고 낚시하던 중 기관실에서 특정할 수 없는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절연열화)으로 인한 전기적 원인이 발화원이 되어 발생한 것
교훈	교훈	○ 기관실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구역이므로 출항 전 전기설비 단자 연결부, 전선 피복 상태를 확인하는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어선 소유자와 선장은 직접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기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등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주변 선박에 구조 등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 사진	관련 사진	 
		[A호 화재 현장] [단락흔 식별 전선]

2. 원양어선 B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B호: 원양어선, 1014톤, 길이 70.8미터, 디젤기관 3,309킬로와트 1기
	일시 장소	2020. 3. 16. 11:35경 미크로네시아 연방 폰페이항 CFC부두
	피해	외국인 선원 B호 사망
	날씨	맑은 날씨, 동남풍 초속 1~2미터, 수면 잔잔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육상으로부터 어구를 인양하던 중 퍼스링*을 묶은 로프가 끊어지면서 데릭 붐(Derrick Boom)의 파워블록을 넘어가지 못한 퍼스링과 체인이 낙하하여 파워블록** 아래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선원의 부주의도 일부 원인이 된다. * 퍼스링(Purse ring) : 그물을 죄기 위한 와이어(Pursing wire)가 통과하는 길이 약 33센티미터, 무게 8.16킬로그램의 고리 ** 파워블록(Power block) : 메인 붐의 끝단에 매달려 있는 어구 견인장치	
교훈	○ 선장은 선내 작업 전 안전교육 시에는 작업 위험요인을 충분히 강조하여 숙지시키고 다양한 사고사례를 알려줌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 선내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회사(인사담당자)는 본선 선원을 승진시킬 때는 해당 선원에 대한 업무능력 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선박의 선장·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사진	 [사고당시 선미 갑판 작업자 위치]  [(망)선원의 깨진 안전모]	